



호소

약학과 인강선

기자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동물원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우 쇠창살에서 벗어난 어머니를 어떻게 도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머니를 짐승이라 부르지만, 저는 어머니가 누구보다 인간다운 부모였다 믿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께서는 ○○출판사의 말단직원이셨습니다. 싱글맘, 워킹맘이라는 단어가 있기도 전이었지만, 생업을 계속하며 홀로 어머니를 키워내셨습니다. 차갑고 견고한 방법창 사이로 지나가는 이들이 보이는, 열 썩 낚짓의 반지하에서 어머니는 자랐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없었던 어머니는, 유일한 가족이던 그녀의 어머니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출판사의 파본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특히 한 생태학자가 저술한 동물백과의 파본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코끼리는 암컷들과 새끼들이 무리지어 가족을 이룬다. 새끼 무리는 그들을 원형으로 둘러싸는 암컷 무리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으며 생명을 의존한다. 암컷 코끼리들은 버림받은 새끼를 발견하면, 자신의 무리가 아닐지라도 새끼가 성체가 될 때까지 같은 무리에서 보호한다.” 어머니께서는 동물백과의 내용 중에서도 이 단락을 특히나 좋아하셔서, 거실의 가족사진 옆에 등글고 무거운 글씨로 필사하여 붙여 두기도 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책임감으로 어머니를 키우셨지만 다소 과묵하고 신경질적인 분이였기에 당시의 어머니가 의지하고 사랑을 기대할 인물은 아니셨던 듯 합니다. 그 탓에 어머니는 쇠창살과 적막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유년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독립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심했던 외할머니였지만, 어머니의 독립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집 밖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니며, 제 밥벌이를 할 때까지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 취직했고, 그나마 창살이 띄엄띄엄한 또 다른 반지하 방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행 유니폼을 입은 어머니의 손에는 책의 페이지 대신 빛바랜 지폐들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남자에도, 연애에도 관심이 없었던 어머니는 일에만 몰두해 서른여덟, 근무하던 은행의 최연소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 제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남편도, 교제하는 남성도 없었습니다. 어느 젊은 미혼모가 저를 낳았고, 베이비박스에 저를 버렸습니다. 좁은 상자에 버려진 저를 꺼내 키워주신 분이 바로 지금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입양한 후,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투명한 통유리창이 도시의 전경을 비추는 집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그곳에서, 어머니는 제가 밝은 여느 ‘친자식’들보다 더 친자식처럼 저를 키우셨습니다.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로 이어져야 가족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피로 이어지더라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가족입니까? 저와 어머니 사이에 혈연은 없었지만, 진득한 인연과 애정은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명백한 가족이었습니다.

흠집 하나 없었던 듯 포장했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6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의 녀석이 저를 입양아라 놀렸습니다. 자신은 친부모님이 계셔서 행복한데, 저 애는 그런 행복을 모를 테니 불쌍하다, 하는 조였습니다. 욕했던 저는 그 애를 교실 뒤에서 흠뻑 패버렸고, 결국 멍투성이가 된 그 애와 저, 그 애의 어머니와 저의 어머니 넷은 학교 상담실에 불려오고 말았습니다. 제 편이 되어 싸워주시기를 바랬건만, 정작 어머니는 굳은살이 갈라진 손으로 그 애의 어머니에게 봉투를 내밀 뿐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상담실을 나섰고, 서운함에 잔뜩 화가 난 채 뒤따라간 저는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기이한 감각이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거칠고 딱딱했던가, 생각하는 찰나. 어머니가 뒤돌아 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올려다본 어머니의 얼굴은 회색빛이었고, 실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뿜은 입은 유독 어금니가 커다래 보였습니다. 아아, 그것은 분노한 어미 코끼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두려워 마땅한 광경이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동물적인 모성과 보호본능을 보았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달, 제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난 날의 밤에 결국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살아온 집은 무너져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짐승이 부모가 되었다 손가락질하며, 어머니를 동물원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어머니의 모성은 동물의 것이었기에 가장 인간다울 수 있었습니다. 집다운 집, 진정한 가족을 찾아 헤매었던 한 인간의 삶을 창살 속에 외로이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기자님께서서는 부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한 어머니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한 마리의 새끼 코끼리 올림.